

# 일터·쉼터·삶터로 ... 활력 넘치는 전남 농어촌 만든다

### 농어촌공사, 재해 예방사업·용수관리 자동화 등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 경영난 농가·청년 농업인 농지 구입 지원단가 상향 등 맞춤형 지원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호) 지대이자 해양 생물의 보고인 전남 농어촌을 젊고 활기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호)는 지속가능 경영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농어촌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재해 예방사업 확대와 용수관리 자동화를 통한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 ▲경영단계별, 연령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추진 ▲스마트농업 고도화와 다각화 선도 등을 중점으로 경영을 추진한다.

우선 가뭄과 홍수 일상화에 대응해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해 안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근 잇따르는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데 본부는 선제적 용수확보대책을 수립하

고 배수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치수능력확대사업 등 신규사업 확대에 노력하고 디지털 기반 용수관리 프로세스 확산을 위해 용수관리 자동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에 애를 쓴다. 본부는 부채와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가와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일반농업인에 비해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지난해 청년농업인 지원단가는 3.3㎡에 5만795원으로 일반농업인(3만9669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올해는 8만3967원으로 일반 농업인(4만 661원)보다 약 2배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또 청년농이 자부담 없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 공사가 보유한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청년농에게 장기임대하

는 '비축농지임대형스마트팜사업'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고도화와 다각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본부는 첨단 농기계와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스마트농업을 구현하고 농가 보급모델 확산을 위해 400억원을 투입, 오는 12월까지 나주시 반남면 청송리 일원에 54.3ha 규모의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고품 스마트팜혁신밸리 핵심시설과 연계한 미래농업 혁신거점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조성한다.

200억원을 투입해 신안(7만조성 7.7ha·온실 4.1ha)에 추진되는 지역특화임대형팜은 친환경 시설원에 융복합단지 조성하고 함께 신규지구 선정 추진을 통해 지역 특색 맞춤형 디지털 농업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영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일들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얻어가는 일"이라며 "공사가 이제껏 축적해 온 기술과 노력을 기반 삼아 젊고 활기 넘치는 농어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영호 본부장(왼쪽 세번째)이 고품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 한전KPS,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4년 연속 'A등급'

### 안전보건활동 등 4개 부문 높아 동일 평가 그룹·전력그룹사 상위권

한전KPS는 고용노동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022년도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해 171개 대상기관의 기관별 등급을 공개했다.

한전KPS는 안전보건경영체계,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성과 등 4개 평가 부문에

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종합등급 A등급을 받았으며 동일 평가그룹(산업진흥·서비스) 및 전력그룹사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절대등급이 전년도와 동일한 A등급이지만, 안전보건관리와 안전보건활동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안전경영 고도화가 더 기대된다는 평을 받았다.

더불어 ▲표준 중대재해 예방활동 체계구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및 ISO 45001) 인증 전사 취득 ▲협력회사 안전보건 지

원 활동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최적화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일일 유해위험 등급제 도입 및 운영 ▲QR코드를 이용한 안전교육 교안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안전문화 조성 등의 다양하고 현장 적용도가 높은 안전정책이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한전KPS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정책과 부합하는 위험성평가 고도화 및 현장 실행력 제고 등을 통해 올해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전, 도미니카공화국과 전력사업 협력 논의

### 발전소 신설 등 협력 요청

한국전력이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전력사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전력 정승일 사장은 지난 7일 서울 롯데호텔 컨퍼런스룸에서 라켈 페냐 도미니카공화국 부통령과 안토니오 알몬테 에너지광물부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전력사업 전반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전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2011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월드뱅크(World Bank) 등의 자금지원으로 발주된 '전력 설비 개선'을 위한 배전망 건설 사업을 수주, 현재까지 약 3000C-km 이상의 노후 배전망과 전주 4만4447기, 변압기 7663대를 교체하는 등 도미니카공화국의 전력설비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송배전손실률은 약 30% 수준에 달해 노후된 전력인프라 개선과 전력공급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미니카는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발전소 신설을 계획하고,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품질 안정화를 위해 ESS의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라켈 페냐 부통령은 배전망 손실 개선 및 효율향상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송배전 계통 건설과 운영 기술력을 갖춘 한전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해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도미니카공화국과 한전은 배전망 개선 건설 사업 등 15년 동안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전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가스발전사업 등 전력산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도미니카공화국을 중남미 지역 해외사업 개발 거점국가로 삼고 에너지효율화, ESS 등 에너지 신사업과 다양한 발전사업 등으로 해외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aT, 베트남서 '한국건강기능식품 품평회' 개최

### 신규판로 확보·수출 확대 나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삼 등 건강기능식품 신규판로 확보와 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건강기능식품 품평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베트남은 건강기능식품이 약국을 통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aT 현지 병행 관계자와 약국 체인 등 건강기능식품을 실제 유통하는 200여 명의 기업을 초청해 한국 건강기능식품이 베트남의 다양한 유통채널로 진출하도록 이번 품평회를 기획했다.

먼저 한국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세미나를 시작으로 이해를 돕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맛보고 실제 구매 상담까지 현장에서 윈스톱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베트남에서 생산한 한자용 영양식, 플라젠, 프로틴 음료 등 최신 트렌



드의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권오엽 aT 식품수출이사는 "베트남 시장에서 고 품질의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점점 높아

지고 있다"며 "이번 품평회 행사를 계기로 한국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프리미엄 K-푸드와 해외의 다양한 유통채널로 수출길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절판 판매 중

이방인

이기원 지음

문이당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